

## 韓國人 中高校生들의 吸煙實態에 關한 研究

朴 淳 永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附設 밝은社會問題研究所

### A Study on the Smoking Status of the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oon-Young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nd Korean Institute of Brighter Society,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 ABSTRACT

I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of teenagers who were randomly chos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1. Juvenile smoking

##### 1) Parents' opinions of juvenile smoking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after growth: 88.6% of fathers (middle school students: 88.9%, high school students: 88.4%) and 95.1% of mothers (middle school students: 93.4%, high school students: 95.5%).

##### 2) Teenagers' opinions of smoking after growth

The rate of students who will smoke after growth is 10.8% (middle school students: 12.0%, high school students: 9.9%); student in agricultural areas show the higher rate than those in cities.

##### 3) Parents' opinions of their children's smoking now

1.5% of fathers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middle school students: 1.3%, high school students: 1.6%) and 1.1% of mothers do (middle school students: 0.6%, high school students: 1.5%). This shows that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 4) Students' opinions of their friends' smoking now

Students who want their friends to smoke now cover 7.8% (middle school students: 7.1%, high school students: 8.4%). This rates are higher than those of parents shown in (3). And more high school students and more girl students gave the positive reponse than middle school boy and girl students, respectively.

##### 5) Students' views of smoking

"Look like an adult" covers the rate of 4.0% (boy: 7.8%, girl: 3.6%) 6.7%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this view, while 3.7%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16.1% of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smoking during the last one year (boy: 29.9%, girl: 8.6%); this shows that the rate of the boy students is more than 3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gir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smoking last year covers 20.2%, while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10.9%.

##### 6)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smoking

The present rate of students' smoking is 22.4% (boy: 38.3%, girl: 13.8%); the rate of boy student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tudents who smoke more than pack of cigarettes a day cover 8.2% (boy: 17.5%, girl: 3.2%); 5.2% of middle school students (boy: 11.4%,

- girl: 2.1%) smoke more than one pack while 10.7% of high school students do (boy: 21.5%, girl: 4.2%). This shows that the rate of boy students' smoking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moking.
- 7) The rate of smoking of students' parents 75.4% of fathers (city: 74.5%, agricultural area: 75.9%) smoke: and more than a half (62.4%) smoke more than a pack of cigarettes a day.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moking mothers is 5.2%(city: 4.3%, agricultural area: 7.3%): the rate is higher in agricultural areas.
  - 8) Opinions of smoking population in the future 61.4% of students answered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increase, while 27.0% have the opinion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decrease.

## 2. Opinions of the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 1)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suffer from tuberculosis? 78.3% of students said yes (boy: 80.8%, girl: 76.4%):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 2)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get out of endurance? 76.6% of students (boy: 69.3%, girl: 49.7%) answered yes: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 3) Have you heard that heart-beats get fast when one smokes? 32.5% of students (boy: 35.5%, girl: 30.9%) answered yes: 32.2% in cities (boy: 33.0%, girl: 31.8%) and 33.5% in agricultural areas (boy: 41.8%, girl: 28.8%): and 28.7% of middle students and 35.5% of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yes.
- 4)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heart-diseases? 35.1% of students (boy: 34.0%, girl: 34.1%) answered yes: 35.3% in cities (boy: 37.2%, girl: 34.2%) and 36.7% in agricultural areas (boy: 39.0%, girl: 33.9%): 34.8%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35.4% of high school students.
- 5)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a lung cancer? 91.4% of students (boy: 93.2%, girl: 89.9%) answered yes: 90.35% in cities and 94.2% in agricultural areas.
- 6) Have you heard that the life of smokers gets shorter? 94.3% of students (boy: 94.6%, girl: 92.2%) answered yes.
- 7) Have you heard that pregnant smokers will deliver a baby with low birth weight? 29.6% of students (boy: 29.8%, girl: 29.4%) answered yes: the rates of boys and girls almost the same.
- 8) Have you heard that one feels calm when one smokes? 80.1% of students (boy: 81.8%, girl: 79.2%) answered yes: boys and girls showed almost the same rate.

## 3. Preventive measures

Smoking people continued to increase all over the world because smoking not only mitigated emotional uneasiness such as loneliness, nervousness and so on, but also could be very helpful from the social perspective. This was so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harmful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and victims. However, because any one can have physical disorders caused by smoking, peopl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following preventive measures.

- 1) Doctors or teachers should set an example of giving up smoking.  
Informing patients or students of harmful effects of smoking to persuade their family and relatives not to smoke.
- 2) Through mass media like newspapers, periodicals or broadcasting, to make people know harmful effects of smoking and not smoke.
- 3) To prohibit selling teenagers cigarettes by law.
- 4) To prohibit smoking in public places like work places, offices, lecture rooms, recreation rooms, buses, trains and so on.
- 5) To decrease the rate of life insurance for non-smokers a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give a warning of the harmful effects on cigarette packets or ads.

## I. 緒 論

담배는 인류최고의 역사인 마야문명의 발상지인 서인도제도도가 원산지라고 하며 마야족의 종교 의식 속에 담배를 태워 신에 제사지내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담배는 신비스러운 마취 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신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었던 듯하다. 그 후 승려에 의하여 흡연이 시작되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 마야족의 흡연은 남북 미대륙에 확대되었으며, 1497년 제 2 차 항해 때 수도사 '로마도넬'의 저서 '도민의 풍습' 속에 흡연의 풍습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다. 다바코(Tobacco)라는 말은 그들이 사용하던 도구(오늘날의 파이프) Y자형 파이프인 타바코스(Tobacos)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구주로 담배가 전래된 것은 16세기 중엽이며 스페인에는 '로드리코·데·헤레스', '후레찌안드·고르레스' 또는 필립2세의 시의 '후란시스코·후레찌안드'가 전했다고 설이 있다. 그리고 '로드리코·데·헤레스'는 담배를 피운 까닭으로 종교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었다고 한다. 후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것을 니코티아나(Nicotiana)라고도 불렀는데 포르투갈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니코티우스(Johannes I. Nicotius)에 연유한다고 한다. 니코티우스는 담배를 프랑스에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며, 담배의 식물학명 '니코찌아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며 니코틴(유독성분)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구주에서 흡연이 성행하자 영국의 제임스1세는 '연초 배격교서'를 발표하고 위법자는 벌금 또는 처형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미하에루'제가 범인의 코를 자르는 형, 시베리아 추방 등을 시행했고, 터키에서는 '암라드'4세가 사형의 중벌까지 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령도 국민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결국 전매권과 중세로써 국가 재원의 수입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에서는 담배를 담파고, 금선초, 상상초, 애경초, 분별초, 폐우양기, 반혼초 등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왔다. 이 담배의 재배는 명의 만력년간(1573~1619)에 시작되었고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도 나타나 있다. 명의승정년간(1628~1643)에는 담배를 피우는 풍습이 많아져서 조정에서는 금령을 내리고 잡아다 죽이기까지도 하였으나 흡연의 풍습을 없앨 수가 없어서 적당히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에는 광해군 10년(1618)에 기록이 처음 나타나며, 16대 인조 당시 석학명신 이수광의 지봉

유설에 담파고(담바고), 남령초가 나타나고 제 17 대 효종 왕의 후비 인선왕후의 생부인 신봉부원군 장유는 담배를 즐겨 피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경장 10년(1605) 풍신수길의 임진란 때 일본의 장병이 우리 나라에서 흡연을 배워가지고 왔다고 연초기에 쓰여 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기록은 실제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 기록보다 20여년 전에 나타난 듯하다.

17세기 중엽에 영국의 의사인 Everard는 담배의 효능에 관한 저서를 내어 그 만능적 효능을 기록한바 있다. 그 후 의약적 효능에 대해서는 이것을 믿지 않게 되었고 해로운 점에 차차 관심을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인구수가 급증했고 현대에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기호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으나 18세기 중엽에 브라질에서 켈런이 만들어졌고, 1870년에는 미국에서 켈런 제조가 기계화되어 양산되게 되었으며, 1880년대에는 미국인구 5천만명일 때 13억 개피의 켈런이 소비되었고, 1970년대에는 인구가 2억4천백만 명으로 300% 증가한데 비하여 켈런 소비량은 5,364억 개피로 4,000%가 증가하였으므로 90년 동안에 켈런 소비량의 증가는 인구 증가의 133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흡연인구는 약 860만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연간 담배 소비량은 1961년의 229억 개피에서 1975년에는 약 540억 개피로 2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미·영국의 성인에서의 담배 소모량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 나라 청소년 중 중·고교생은 어린이와 성인과의 중간 시기로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연령적으로 보면 12세부터 20세까지가 된다고 보겠다.

이 시기는 급속하게 신체가 성장 발달하는 시기이고 그 개인차도 크다고 보겠다. 신체발육이나 성적 성숙이 현저한데 비해 정신발달이나 인격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각 기능간에도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시기인 것이다. 신체내부에 발달부분과 미발달부분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특히 정신심리면의 불안정성이 눈에 띈다. 이러한 시기에 흡연을 하는 것은 신체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겠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가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는 중고교생들에 대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첫째, 청소년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표 1. 흡연실태조사 대상자수

구분		중학생	고교생	소계
남	No.	201	298	499
	%	40.3	59.7	100.0
여	No.	422	496	918
	%	46.0	54.0	100.0
계	No.	623	794	1,417
	%	44.0	56.0	100.0

- ① 학생들의 성장 후에 흡연관계
- ② 학생들의 현재 흡연관계
- ③ 장래 흡연인구에 대한 견해

둘째, 흡연시 인체의 해에 대한 지식

셋째, 흡연시 인체의 해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성적이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국에서 중·고교생 중 1,417명(남자 : 499명, 여자 : 918명/중학생 : 623명, 고교생 : 794명)을 임의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 2. 연구방법

#### 1)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1992년 6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흡연조사

선정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 즉 '한국청소년흡연조사서'를 배부하여 조사자가 직접 설명하면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특성
- ②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③ 흡연상태
- ④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조사자료의 처리

조사하여 얻은 조사서의 내용을 검토 및 부기하여 coding sheet에 옮겼다. 이 조사자료는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중·고교생

별, 남녀별, 도시와 농촌별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처리하여 표시하였다.

## III. 調查成績

### 1. 청소년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1) 학생들의 성장후에 흡연관계

(1)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흡연관계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성장후에 흡연에 대한 견해를 보면(표 2) 중학생의 경우 성장 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바라는 율은 88.9%(남자 : 79.6%, 여자 : 93.4%)로 나타나며, 고교생의 경우 88.4%(남자 : 83.6%, 여자 : 91.3%)로 전체로는 88.6%(남자 : 82.0%, 여자 : 92.3%)로 각각 나타났고, 피우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6.5%(남자 : 14.2%, 여자 : 2.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바라는 율로 95.1%(중학생 : 93.4%, 고교생 : 95.5%)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남녀의 경우는 92.4%와 96.6%로 각각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 (2) 친구가 원하는 흡연관계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이 성장후에 흡연에 대한 견해를 보면(표 2) 중학생들의 경우 피우지 않는 것을 바라는 율이 80.6%(남자 : 59.7, 여자 : 90.5%), 고교생의 경우 76.6%(남자 : 59.4%, 여자 : 87.1%), 합계 78.4%(남자 : 59.5%, 여자 : 88.7%) 등으로 나타나며, 담배를 피우기를 원하는 율은 중학생의 경우 17.5%, 고교생의 경우 20.8%, 합계 19.3%로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3) 현재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 흡연관계

현재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 흡연에 대한 것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우겠다」가 전체의 10.8%(남자 : 13.2%, 여자 : 10.1%)로 중학생의 경우 12.0%(18.3%와 10.4%)로 고교생의 경우 9.9%(9.9%와 10.0%) 등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학생들 보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더 높은 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 2) 학생들의 현재 흡연상태

#### (1) 현재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흡연상태

현재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들의 흡연상태를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자기 자녀들이 담배를 피우기를 원하는 율은 전체의 1.5%(남자 : 2.5%, 여자 : 0.9%)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1.3%(남자 : 2.0%, 여자 : 0.9%)로, 고교생의 경우 1.6%(남자 : 3.0%, 여자 : 0.8%)로 각각 나타났으며, 어머니

표 2. 학생들의 성장 후에 흡연관계

구 분		도 시			소계	농 촌			소계	합 계			계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중·고교생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성인 후 흡연관계	남	No.	297	50	11	358	112	21	8	141	409	71	19	499
		%	83.0	14.0	3.0	100.0	79.4	14.9	5.7	100.0	82.0	14.2	3.8	100.0
	여	No.	616	13	32	661	231	8	18	257	847	21	50	918
		%	93.2	2.0	4.8	100.0	89.9	3.1	7.0	100.0	92.3	2.3	5.4	100.0
	계	No.	913	63	43	1,019	343	29	26	398	1,256	92	69	1,417
		%	89.6	6.2	4.2	100.0	86.2	7.3	6.5	100.0	88.6	6.5	4.9	100.0
중·고교생들의 어머니가 원하는 성인 후 흡연관계	남	No.	330	22	6	358	131	7	3	141	461	29	9	499
		%	92.2	6.1	1.7	100.0	92.9	5.0	2.1	100.0	92.4	5.8	1.8	100.0
	여	No.	642	8	11	661	245	7	5	257	887	16	15	918
		%	97.1	1.2	1.7	100.0	95.3	2.7	2.0	100.0	96.6	1.8	1.6	100.0
	계	No.	972	30	17	1,019	376	14	8	398	1,348	45	24	1,417
		%	95.4	2.9	1.7	100.0	94.5	3.5	2.0	100.0	95.1	3.2	1.7	100.0
중·고교생들의 친구가 원하는 성인 후 흡연관계	남	No.	198	147	13	358	99	37	5	141	297	184	18	499
		%	55.3	41.1	3.6	100.0	70.2	26.3	3.5	100.0	59.5	36.9	3.6	100.0
	여	No.	585	64	12	661	316	26	2	344	814	90	14	918
		%	88.5	9.7	1.8	100.0	91.8	7.6	0.6	100.0	88.7	9.8	1.5	100.0
	계	No.	783	211	25	1,019	415	63	7	485	1,111	274	32	1,417
		%	76.8	20.7	2.5	100.0	85.6	13.0	1.4	100.0	78.4	19.3	2.3	100.0
현재 학생이 성인이 된 후의 흡연관계	남	No.	81	142	135	358	56	33	52	141	35	51	179	265
		%	22.6	39.7	37.7	100.0	39.7	23.4	36.9	100.0	13.2	19.2	67.6	100.0
	여	No.	62	129	470	661	32	44	181	257	91	176	630	897
		%	9.4	19.5	71.1	100.0	12.5	17.1	70.4	100.0	10.1	19.6	70.3	100.0
	계	No.	143	271	605	1,019	88	77	233	398	126	227	809	1,162
		%	14.0	26.6	59.4	100.0	22.1	19.3	58.6	100.0	10.8	19.6	69.6	100.0

나가 원하는 자녀들의 흡연상태를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1.1%(남자 : 2.0%, 여자 : 0.7%), 중학생의 경우 0.6%(남자 : 0.5%, 여자 : 0.7%), 고교생의 경우 1.5%(남자 : 3.0%, 여자 : 0.6%)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2) 현재 친구가 원하는 동료들의 흡연상태  
현재 친구들이 원하는 자기 동료들의 흡연상태를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를 피우기를 원하는 율은 전체의 7.8%(남자 : 13.0%, 여자 : 4.5%)로, 중학생의 경우 7.1%(남자 : 10.1%, 여자 : 4.9%), 고교생의 경우 8.4%(15.8%와 4.0%) 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으며, 부모가 원하는 율 보다 친구들이 원하는 율이 높았으며, 고교생이 중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 학생들의 현재 흡연관계

구 분		도 시			소계	농 촌			소계	합 계			계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피우지 않는 것을 바람	피우는 것을 바람	모르겠다		
중·고교생들의 아버지가 현재 원하는 흡연관계	남	No.	339	11	8	358	156	4	8	168	468	13	32	513
		%	94.7	3.1	2.2	100.0	92.9	2.4	4.7	100.0	91.2	2.5	6.3	100.0
	여	No.	627	5	29	661	238	3	16	257	865	8	45	918
		%	94.9	0.8	4.3	100.0	92.6	1.2	6.2	100.0	94.2	0.9	4.9	100.0
	계	No.	966	16	37	1,019	394	7	24	425	1,333	21	77	1,431
		%	94.8	1.6	3.6	100.0	92.8	1.6	5.6	100.0	93.2	1.5	5.3	100.0
중·고교생들의 어머니가 현재 원하는 흡연관계	남	No.	350	6	2	358	134	4	3	141	484	10	5	499
		%	97.8	1.7	0.5	100.0	95.0	2.8	2.2	100.0	97.0	2.0	1.0	100.0
	여	No.	643	6	12	661	246	6	5	257	895	6	18	919
		%	97.3	0.9	1.8	100.0	95.7	2.3	2.0	100.0	97.4	0.7	1.9	100.0
	계	No.	993	12	14	1,019	380	10	8	398	1,379	16	23	1,418
		%	97.4	1.2	1.4	100.0	95.5	2.5	2.0	100.0	97.2	1.1	1.7	100.0
중·고교생들의 친구가 현재 원하는 흡연관계	남	No.	295	62	11	358	122	14	5	141	492	76	16	584
		%	79.6	17.3	3.1	100.0	86.5	9.9	3.6	100.0	84.2	13.0	2.7	100.0
	여	No.	619	30	12	661	246	9	2	257	865	41	12	918
		%	93.6	4.6	1.8	100.0	95.7	3.5	0.8	100.0	94.2	4.5	1.3	100.0
	계	No.	904	92	23	1,019	368	23	7	398	1,357	117	28	1,502
		%	88.7	9.0	2.3	100.0	92.5	5.8	1.7	100.0	90.3	7.8	1.9	100.0

표 3-2. 현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견해

구 분		도 시			소계	농 촌			소계	합 계			계	
		어른답게 보인다	어른답게 보이지 않는다	모르겠다		어른답게 보인다	어른답게 보이지 않는다	모르겠다		어른답게 보인다	어른답게 보이지 않는다	모르겠다		
현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견해	남	No.	16	115	227	358	23	68	51	142	39	168	292	499
		%	4.5	32.1	63.4	100.0	16.2	47.9	35.9	100.0	7.8	33.7	58.5	100.0
	여	No.	29	207	425	661	9	71	177	257	38	274	757	1,069
		%	4.4	31.3	64.3	100.0	3.5	27.6	68.9	100.0	3.6	25.6	70.8	100.0
	계	No.	45	322	652	1,019	32	139	228	399	77	442	1,049	1,568
		%	4.4	31.6	64.0	100.0	8.0	34.8	57.2	100.0	4.0	28.2	66.9	100.0

표 4. 학생들의 흡연상태

구분	도시				소계	농촌			소계	합계			계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지난 1년 동안 학생의 흡연 유무	남	No.	268	21	69	358	82	8	51	141	350	29	120	499
		%	74.9	5.9	19.2	100.0	58.2	5.7	36.1	100.0	70.1	5.8	24.1	100.0
	여	No.	851	22	35	908	235	11	11	257	839	33	46	918
		%	93.7	2.4	3.9	100.0	91.4	4.3	4.3	100.0	91.4	3.6	5.0	100.0
	계	No.	1,119	43	104	1,266	317	19	62	398	1,189	62	166	1,417
		%	88.4	3.4	8.2	100.0	79.6	4.8	15.6	100.0	85.9	4.4	11.7	100.0
지난 1개월 동안 학생들의 흡연 유무	남	No.	301	7	50	358	89	17	35	141	390	24	85	499
		%	84.1	1.9	14.0	100.0	63.1	12.1	24.8	100.0	78.2	4.8	17.0	100.0
	여	No.	634	7	20	661	285	3	4	292	884	10	24	918
		%	95.9	1.1	3.0	100.0	97.6	1.0	1.4	100.0	96.3	1.1	2.6	100.0
	계	No.	935	14	70	1,019	374	20	39	433	1,274	34	109	1,417
		%	91.8	1.4	6.8	100.0	86.4	4.6	9.0	100.0	89.9	2.4	7.7	100.0
학생들의 현재 흡연 상태	남	No.	239	15	44	358	69	29	43	141	308	104	87	499
		%	66.8	20.9	12.3	100.0	48.9	20.6	30.5	100.0	61.7	20.8	17.5	100.0
	여	No.	569	67	25	661	222	30	5	257	791	97	30	918
		%	86.1	10.1	3.8	100.0	86.4	11.7	1.9	100.0	86.2	10.6	3.2	100.0
	계	No.	808	142	69	1,019	291	59	48	398	1,099	201	117	1,417
		%	79.3	13.9	6.8	100.0	73.1	14.8	12.1	100.0	77.6	14.2	8.2	100.0

(3) 현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견해

현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견해에 대한 것을 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른답게 보인다」는율이 전체의 4.0%(남자: 7.8%, 여자: 3.6%)로, 중학생의 경우 6.7%(8.9%와 5.7%)로, 고교생의 경우 3.7%(7.0%, 2.2%) 등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4) 지난 1년 동안 학생의 흡연 상태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흡연상태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율이 16.1%(남자: 29.9%, 여자: 8.6%)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10.9%(남자: 19.4%, 여자: 6.9%)로, 고교생의 경우 20.2%(남자: 36.9%, 여자: 10.1%)로 각각 나타났으며, 중학생 보다 고교생이 배이상 높은 흡연 경험율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역시 3배 이상의 흡연경험율을 보여 주고 있

었고, 또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흡연경험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1일 한 갑 이상 흡연경험율이 전체 11.7%(남자: 24.1%, 여자: 5.0%)로, 중학생의 경우 7.5%(남자: 15.4%, 여자: 3.8%)로 고교생의 경우 15.0%(남자: 29.9%, 여자: 6.1%)로 각각 나타났으며, 역시 고교생들이 중학생들보다 2배이상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5) 지난 1개월 동안 학생들의 흡연상태

지난 1개월 동안 학생들의 흡연상태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율이 10.1%(남자: 21.8%, 여자: 3.7%)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7.1%(남자: 15.9%, 여자: 2.3%)로, 고교생의 경우 12.5%(남자: 25.8%, 여자: 4.4%)로 각각 나타났으며, 중학생 보다 고교생의 흡연율이 더

표 5. 학생들 부모의 흡연율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계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소계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소계	피우지 않았다	1-19개 피웠다	20개 이상 피웠다		
학생들 아버지의 연상태	남	No.	90	46	222	358	34	6	99	141	124	53	322	499
		%	25.1	12.8	62.1	100.0	24.1	5.7	70.2	100.0	24.8	10.6	64.6	100.0
	여	No.	170	163	328	661	62	24	171	257	232	136	582	950
		%	25.7	24.7	49.6	100.0	24.1	9.3	66.6	100.0	24.4	14.3	61.3	100.0
	계	No.	260	209	550	1,019	96	32	270	398	356	189	904	1,449
		%	25.5	20.5	54.0	100.0	24.1	8.0	67.9	100.0	24.6	13.0	62.4	100.0
학생들 어머니의 연상태	남	No.	336	1	18	355	124	4	13	141	460	5	31	496
		%	94.6	0.3	5.1	100.0	87.9	2.8	9.3	100.0	92.7	1.0	6.3	100.0
	여	No.	635	7	18	660	245	3	9	257	880	10	27	917
		%	96.2	1.1	2.7	100.0	95.3	1.2	3.5	100.0	95.9	1.1	3.0	100.0
	계	No.	971	8	36	1,015	369	7	22	398	1,340	15	58	1,413
		%	95.7	0.8	3.5	100.0	92.7	1.8	5.5	100.0	94.8	1.1	4.1	100.0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1일 한 갑 이상 흡연경험율이 7.7%(남자 : 17.0%, 여자 : 2.6%)로, 중학생의 경우 4.9%(10.4%와 2.1%)로, 고교생의 경우 10%(21.4%와 3.0%)로 각각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흡연경험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6) 학생들의 현재 흡연상태

학생들의 현재 흡연상태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율은 22.4%(남자 : 38.3%, 여자 : 13.8%)로 남학생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 중에서 1일 한갑 이상의 흡연율 역시 8.2%(17.5%와 3.2%)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5.2%(11.4%와 2.1%)로, 고교생의 경우 10.7%(21.5%와 4.2%)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8.5%(33.8%와 11.1%)와 고교생의 25.6%(41.3%와 16.1%)로 각각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흡연율이 비교적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생들과 비교시에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약간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7) 학생들 부모의 흡연율

학생들 부모의 흡연율을 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아버지의 흡연율은 75.4%(도시지역 : 74.5%, 농촌지역 : 75.9%)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의 아버지 흡연율은 76.1%, 고교생들의 아버지는 75.1%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으며, 1일 한갑 이상 흡연율은 62.4%로 역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학생 아버지의 흡연율은 75.2%, 여학생 아버지의 경우는 75.6%로 같게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들의 아버지 흡연율이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어머니의 흡연상태는 5.2%(도시지역 : 4.3%, 농촌지역 : 7.3%)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어머니 흡연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어머니 흡연율은 6.6%, 고교생의 어머니 흡연율은 4.1%로 각각 나타났다.

3) 장래 흡연인구에 대한 견해

현재 학생들의 장래 흡연인구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보다 흡연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61.4%, 지금보다 감소한다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38.6%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다는 견해는 11.6%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중·고교생별로 보면 거의 견해가 같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장래 흡연인구에 대한 견해

구 분	도 시				소계	농 촌			소계	합 계			계	
	지금 보다 증가 한다	지금 보다 감소 한다	변화가 없다	소계		지금 보다 증가 한다	지금 보다 감소 한다	변화가 없다		소계	지금 보다 증가 한다	변화가 보다 감소 한다		지금 없다
	No.	%	No.	%		No.	%	No.		%	No.	%		No.
장래 흡연인구에 대한 견해	남	No.	211	102	45	358	74	44	23	141	285	146	68	499
		%	58.9	28.5	12.6	100.0	52.5	31.2	16.3	100.0	57.1	29.3	13.6	100.0
	여	No.	434	149	66	649	150	77	30	257	585	237	96	918
		%	66.9	23.0	10.1	100.0	58.4	30.0	11.6	100.0	63.7	25.8	10.5	100.0
	계	No.	645	251	111	1,007	224	121	53	398	870	383	164	1,417
		%	64.0	25.0	11.0	100.0	56.3	30.4	13.3	100.0	61.4	27.0	11.6	100.0

2. 흡연시 인체의 해에 대한 지식

1) 흡연시 폐결핵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폐결핵에 대하여 들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에 78.3%(남자: 80.8%, 여자: 76.4%)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들 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69.1%(남자: 76.6%, 여자: 61.4%)로, 고교생의 경우 83.8%(남자: 84.2%, 여자: 83.5%)로 고교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81.0%(남자: 71.8%, 여자: 80.6%)로, 농촌지역의 경우 79.2%(남자: 75.0%, 여자: 82.5%)로 각각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도시지역이 77.4%(남자: 75.9%, 여자: 77.9%), 농촌지역은 74.0%(67.1%와 80.2%)로서 도시지역 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생의 경우 도시지역이 83.8%(84.7%와 83.2%)로, 농촌지역은 83.4%(82.1%와 83.9%)로 각각 나타났다.

2) 흡연시 지구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지구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중 76.6%(남자: 69.3%, 여자: 49.7%)로 나타났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 학생들의 경우 54.6%(64.8%와 49.1%)로, 농촌지역의 경우 62.4%(83.1%와 49.8%) 등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52.5%(56.2%와 50.7%)로, 고

교생의 경우 59.8%(78.2%와 48.8%)로서 고교생이 중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흡연시 심장의 운동이 빨라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심장의 운동이 빨라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율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다는 비율이 32.5%(남자: 35.5%, 여자: 30.9%)로서 남자쪽이 약간 높은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비율을 보면 도시지역이 32.2%(33.0%와 31.8%)로, 농촌지역은 33.45(41.8%와 28.8%)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군이 28.7%(26.9%와 29.6%)로, 고교생군이 35.5%(41.3%와 32.1%)로 각각 나타났는데 고교생군이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 흡연시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1%(34.0%와 34.1%)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35.3%(37.2%와 34.2%)로, 농촌지역이 36.7%(39.0%와 33.9%)로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군이 34.8%(34.0%와 34.8%), 고교생군이 35.4%(39.3%와 33.0%)로 각각 나타났다.

5) 흡연시 폐암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폐암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성적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율이 전체 중 91.4%(남자: 93.2%, 여자: 89.9%)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의 경우는 90.35%, 농촌지역은 94.2%로 각각 나타났고, 학력군

표 7. 흡연시 인체의 해에 대한 지식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소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소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흡연하면 세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남	No.	65	76	217	358	38	54	49	141	103	168	266	537
		%	18.2	21.2	60.5	100.0	27.0	38.3	34.7	100.0	19.2	31.3	49.5	100.0
	여	No.	128	195	336	659	45	58	154	257	173	176	383	732
		%	19.4	29.6	51.0	100.0	17.5	22.6	59.9	100.0	23.6	24.0	52.4	100.0
	계	No.	193	271	553	1,017	83	112	203	398	276	344	649	1,269
		%	19.0	26.6	54.4	100.0	20.8	28.1	51.1	100.0	21.7	27.1	51.2	100.0
흡연하면 지구력(장 거리를 달 리는 힘)이 떨어 지기 쉽다고 든 적이 있는가?	남	No.	126	70	162	358	27	53	80	160	153	104	242	499
		%	35.2	19.6	45.2	100.0	16.9	33.1	50.0	100.0	30.7	20.8	48.5	100.0
	여	No.	337	151	173	661	133	51	81	265	462	202	254	918
		%	50.9	22.8	26.3	100.0	50.2	19.2	30.6	100.0	50.3	22.0	27.7	100.0
	계	No.	463	221	335	1,019	160	104	161	425	615	306	496	1,417
		%	45.4	21.7	32.9	100.0	37.6	24.5	37.9	100.0	43.4	21.6	35.0	100.0
흡연하면 운 동이 빨라 진다고 들 은 적이 있는가?	남	No.	240	63	55	358	82	37	22	141	322	100	77	499
		%	67.0	17.6	15.4	100.0	58.2	26.2	15.6	100.0	64.5	20.0	15.5	100.0
	여	No.	451	126	84	661	183	42	32	257	634	168	116	918
		%	68.2	19.1	12.7	100.0	71.2	16.3	12.5	100.0	69.1	18.3	12.6	100.0
	계	No.	691	189	139	1,019	265	79	54	398	956	268	193	1,417
		%	67.8	18.5	13.7	100.0	66.6	19.8	13.6	100.0	67.5	18.9	13.6	100.0
흡연하면 심 장병에 걸리 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남	No.	228	65	70	363	86	36	19	141	314	101	84	499
		%	62.8	18.0	19.2	100.0	61.0	25.5	13.5	100.0	63.0	20.2	16.8	100.0
	여	No.	435	143	83	661	170	43	44	257	605	186	127	918
		%	65.8	21.6	12.6	100.0	66.1	16.7	17.2	100.0	65.9	20.3	13.8	100.0
	계	No.	663	208	153	1,024	256	79	63	398	919	287	211	1,417
		%	64.7	20.3	15.0	100.0	64.3	19.8	15.9	100.0	64.9	20.3	14.8	100.0
흡연하면 폐 암에 걸 리기 쉽다 고 들은 적이 있는가?	남	No.	26	65	267	358	3	63	75	141	29	128	342	499
		%	7.3	18.2	74.5	100.0	2.1	44.7	53.2	100.0	5.8	25.7	68.5	100.0
	여	No.	73	200	388	661	20	72	165	257	93	272	553	918
		%	11.0	30.3	58.7	100.0	7.8	28.0	64.2	100.0	10.1	29.6	60.3	100.0
	계	No.	99	265	655	1,019	23	135	240	398	122	400	895	1,417
		%	9.7	26.0	64.3	100.0	5.8	33.9	60.3	100.0	8.6	28.2	63.2	100.0

표 7. Continued

구 분		도 시				농 촌				합 계			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소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소계	없다	1-2회 있다	몇 회 있다		
흡연차면 수명이 짧 아진다고 들은적이 있는가?	남	No.	24	40	294	358	3	33	105	141	27	73	399	499
		%	6.7	11.2	82.1	100.0	2.1	23.4	74.5	100.0	5.4	14.6	80.0	100.0
	여	No.	57	141	463	661	6	50	201	257	63	191	826	1,080
		%	8.6	21.3	70.1	100.0	2.3	19.5	78.2	100.0	5.8	17.7	76.5	100.0
	계	No.	81	181	757	1,019	9	83	306	398	90	264	1,225	1,579
		%	7.9	17.8	74.3	100.0	2.3	20.8	76.9	100.0	5.7	16.7	77.6	100.0
임부의 흡연시 저체중아 분만 이라고 들 은적이 있 는가?	남	No.	233	59	66	358	96	21	24	141	401	80	90	571
		%	65.1	16.5	18.4	100.0	68.1	14.9	17.0	100.0	70.2	14.0	15.8	100.0
	여	No.	449	90	105	644	181	40	37	258	647	133	137	917
		%	69.7	13.9	16.4	100.0	70.1	15.5	14.4	100.0	70.6	14.5	14.9	100.0
	계	No.	682	149	171	1,002	277	61	61	399	1,048	213	227	1,488
		%	68.1	14.9	17.0	100.0	69.4	15.3	15.3	100.0	70.4	14.3	15.3	100.0
흡연자의 흡연시 기분이 안정된 다고 들 은적이 있는가?	남	No.	70	94	194	358	22	38	81	141	92	132	282	506
		%	19.6	26.3	54.1	100.0	15.6	26.9	57.5	100.0	18.2	26.1	55.7	100.0
	여	No.	141	200	300	641	39	72	149	260	197	299	449	945
		%	22.0	31.2	46.8	100.0	15.0	27.7	57.3	100.0	20.8	31.6	47.6	100.0
	계	No.	211	294	494	999	61	110	230	401	289	431	731	1,451
		%	21.1	29.4	49.5	100.0	15.2	27.4	57.4	100.0	19.9	29.7	50.4	100.0

별로는 중학생군이 88.1%(남자: 89.1%, 여자: 87.7%), 고교생군은 94.0%(남자: 97.7%, 여자: 91.7%)로 각각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중·고교생 모두가 높은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6) 흡연시 수명이 짧아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시 수명이 짧아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성적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는율은 전체 중 94.3%(남자: 94.6%, 여자: 94.2%)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가 92.1%(남자: 93.3%, 여자: 91.4%), 농촌지역이 97.7%(남자: 97.9%, 여자: 97.7%)로 각각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중학생 군이 93.4%(남자: 93.1%, 여자: 93.5%), 고교생군은 95.2%(남자: 95.6%, 여자: 95.0%)로 각각 나타났는데, 대상자 모두가 흡연과 수명과의 관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7) 임부의 흡연시 저체중아를 분만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임부의 흡연시 저체중아를 분만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성적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는율은 전체 중 29.6%(남자: 29.8%, 여자: 29.4%)로 거의 남녀가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31.9%(남자: 34.9%, 여자: 30.3%), 농촌지역이 30.6%(남자: 31.9%, 여자: 29.9%)로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중학생 군이 23.3%(남자: 20.9%, 여자: 24.9%), 고교생군이 35.1%(남자: 37.9%, 여자: 33.3%)로 고교생이 중학생들보다 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8) 흡연자의 흡연시 기분이 안정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흡연자의 흡연시 기분이 안정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율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1%(남자: 81.8%, 여자: 79.2%)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가 78.9%(남자: 80.4%, 여자: 78.0%), 농촌지역이 84.8%(남자: 84.4%, 여자: 85.0%)로 각각 나타났고,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군이 74.9%(남자: 78.8%, 여자: 73.1%), 고교생군이 84.4%(남자: 83.9%, 여자: 84.7%)로서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IV. 結論 및 提言

##### 1. 結 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중·고교생 1471명을 임의 선정하여 이들에 대하여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청소년의 흡연

##### (1) 청소년 흡연에 대한 부모의 견해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 후에 흡연을 원치 않는율이 아버지는 88.6%(중학생: 88.9%, 고교생: 88.4%), 어머니는 95.1%(93.4%와 95.5%)로 대부분 원치 않고 있었다.

##### (2) 학생들이 성장 후 흡연에 대한 견해

학생들이 성장 후 흡연하겠다는 비율은 10.8%(중학생: 12.0%, 고교생: 9.9%)로 각각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 (3) 현재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흡연관계

아버지가 현재 자기 자녀가 흡연을 원하는율은 1.5%(중학생: 1.3%, 고교생: 1.6%), 어머니가 원하는율은 1.1%(0.6%와 1.5%)로 거의가 원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현재 친구가 원하는 동료들의 흡연관계

현재 친구들이 원하는 자기 동료들의 흡연율은 7.8%(중학생: 7.1%, 고교생: 8.4%)로 부모가 원하는율보다 친구들이 원하는율이 더 높았으며, 고교생들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높았다.

##### (5) 현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견해

「어른답게 보인다」가 전체의 4.0%(남자: 7.8%, 여자: 3.6%)로, 중학생이 6.7%, 고교생이 3.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의 흡연경험율은 16.1%(남자: 29.9%, 여자: 8.6%)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10.9%, 고교생이 20.2%로 고교생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3배 이상 나타났다.

##### (6) 학생들의 현재 흡연상태

현재 흡연율을 보면 22.4%(남자: 38.3%, 여자: 13.8%)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1일 한갑이상 흡연율은 8.2%(17.5%와 3.2%)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5.2%(11.4%와 2.1%)로, 고교생은 10.7%(21.5%와 4.2%)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7) 학생들 부모의 흡연율

아버지의 흡연율은 75.4%(도시: 74.5%, 농촌: 75.9%)로 나타났으며, 1일 한갑이상 흡연이 62.4%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한편 어머니의 흡연율은 5.2%(도시: 4.3%, 농촌: 7.3%)로 농촌지역이 더 높았다.

##### (8) 장래 흡연 인구에 대한 견해

지금보다 흡연인구가 증가한다고 61.4%, 지금보다 감소한다고 27.0%로 각각 나타났다.

##### 2) 흡연시 인체에 대한 견해

(1) 흡연시 폐결핵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는 비율이 78.3%(남자: 80.8%, 여자: 76.1%)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2) 흡연시 지구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는율이 76.6%(69.3%와 49.7%)로 나타났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3) 흡연시 심장의 운동이 빨라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는율이 32.5%(35.5%와 30.9%)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32.2%(33.0%와 31.8%), 농촌지역이 33.45%(41.8%와 28.8%)로, 중학생이 28.7%, 고교생이 35.5%로 각각 나타났다.

(4) 흡연시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는율이 35.1%(34.0%와 34.1%)로 나타났으며, 도시가 35.3%(37.2%와 34.2%), 농촌이 36.7%(39.0%와 33.9%)로 중학생이 34.8%(34.0%와 34.8%), 고교생이 35.4%(39.3%와 33.0%)였다.

(5) 흡연시 폐암에 걸리기 쉽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는율이 91.4%(남자: 93.2%, 여자: 89.9%)로 나타났으며, 도시가 90.35%, 농촌이 94.2%로 각각 나타났다.

(6) 흡연시 수명이 짧아진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가 94.3%(94.6%와 94.2%)로 같게 나타났다.

(7) 입부의 흡연시 저체중아를 분만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가 29.6%(29.8%와 29.4%)로 거의 남녀가 같게 나타났다.

(8) 흡연자의 흡연시 기분이 안정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가 80.1%(81.8%와 79.2%)로 거의 남녀가 같게 나타났다.

### 3) 예방대책

사람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한적감과 근심걱정, 초조감 등 정서적인 불안감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사교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흡연자의 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비록 흡연의 위해를 알고 있다라도 자신이 희생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늘 명심하여야 한다.

- ① 의사 또는 학교교사 자신들이 솔선하여 끊고, 환자나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해를 알려 주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계몽하도록 한다.
- ② 신문, 잡지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담배의 위해를 알려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 ③ 연소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규제한다.
- ④ 공공기관 즉 일반교통기관, 오락장, 작업장, 또는 사무실, 강의실 내에서의 흡연을 금한다.
- ⑤ 외국에서와 같이 생명보험의 불입금을 비흡연자인 경우 감해주고, 담배갑이나 광고에 담배의 위해를 경고하도록 한다.

## 2. 提 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속에 정신이 빈곤한 사회이며 과학이 발달하여 살기에 편리한 사회는 되었으나 마음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화려한 도시사회의 출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이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불치의 병은 사라져 가고 있으면서도 현대병에 시달려야 하며, 자기보호의 수단으로 개발한 무기는 인간을 순간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생활은 윤택해지고 있으나 가혹한 범죄행위는 증대되고, 가장 사랑 받을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탈선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다. 사회적 약속이 이해관계로 깨지며 부부의 사랑이 미움으로 돌변하고 이혼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대규모 조직속에서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작용하게 되고 다수의 조직화된 대중속에서 개성을 상실한 채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정신적 고아가 되어 가고 있다. 지식이나 인격보다는 기술이나 자금을 중시하게 되고 인정이나 인연보다도 금전적 이익을 앞세우려하고 있다. 배스컴에 배후되어 소비능력이 만연되고 대량생산체제에 자원이 고갈되고 인구증가와 인구도시집중으로 공해가 늘어가고 있다. 컴퓨터의 개발, 로버트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역할이 기계로 대체되고 기계에 인간이 밀려나고, 인간의 가치가 기계보다 하락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인정의 고갈로 개인은 로버트로 변신되고 사회해체 현상이 나타나 안정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사회변천과정에서 인류에게 발전을 주고 있는면도 없지 않으나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인류사회의 종말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순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자를 파괴시켰지만 승자의 입장에서 영화는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전쟁은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최후의 위기가 될 것인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인간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간교육을 실시하여 인간중심사상, 인간주체사상을 키우고 인정을 알고 인정을 중시하는 인격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초의 단계는 인류의식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유구한 역사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인류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이다. 협동하고 봉사를 하려는 밝고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제기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식을 바로 잡으려는 사회집단이 많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족의식을 높이려는 집단이 세계 각국에 조직되고 그러한 클럽들이 제휴하며 형제의식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에 대처할 때 인류는 지구상에 영원한 주인으로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 현대

사회가 복잡한 만큼 청소년의 비행문제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보면 조직폭력화, 집단화, 년소화, 충동적인 범죄증가, 학생범죄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소년비행의 주요원인은 가정, 학교, 사회의 비교육적인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 가장 많으며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조속에서 청소년범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 해결과 이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자세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협력으로 이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밝은사회운동을 확산하자는 것이다. 선의, 협동, 봉사, 기여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잘살기 운동, 건전사회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하는 밝은사회운동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 지지를 받아 확산되고 있다. 나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중시하는 운동인 밝은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자세로 매진할 때,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인류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여러 병리 요인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글을 마치기로 한다.

### 參考文獻

1. 권이혁: 최신보건학. 서울, 신광출판사.
2. 권이혁: 우리나라 보건실태에 관한 소고. 보건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37-49, 1976.
3. 권이혁: 인류생태학적면에서 본 건강. 인류생태와 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보건협회, 5-12, 1975.
4. 권숙표: 대기오염. 보건학공개강좌, 보건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130-136.
5. 김남승: 청소년 비행 범죄의 환경적 요인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 교육대학원, 119-120, 1982.
6. 김병성 등: "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종합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29, 1982.
7. 김정근: 생태학적 접근-자연과 인간생태계. 보건학공개강좌, 보건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137-148, 1976.
8. 김현조: 현대사회학, (서울; 진명출판사, 1978), p. 223.
9.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1985.
10. 박순영: 현대인의 건강관리. 경희대학교 밝은사회문제연구소, 성학대리보 출판국, 17-655, 1986.
11. 박순영, 조만제, 신대순: 밝은사회운동론, 밝은사회문제연구소, 9-21, 1984.
12. 박순영: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는 가능한가?. 밝은사회연구, 10, 11, 1987.
13. 박순영: 밝은사회운동과 국민화합. 밝은사회연구, 13, 1989.
14. 박양년: 현대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1976.
15. 박준희: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실학사, p. 27, 1975.
16. 밝은사회문제연구소: "현대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밝은사회운동, 가을호, pp. 12-14, 1985.
17. 신대순: 한국지역사회개발론. 서울, 세영사, 1984.
18. 신대순: 건전사회. 밝은사회연구, 10, 11, 1987.
19. 신대순: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밝은사회연구, 9, 1985.
20. 성영혜: 청소년 비행의 요인 분석. 논문집 제 15 집, 숙명여자대학교, 247, 1975.
21. 송영기 등: 소년원생의 재 비행예측에 관한 연구. 광주소년원, 125-129, 1975.
22. 양 훈: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 청소년범죄연구, 1, 서울, 법무부, p. 207, 1983.
23. 이성진 등: 국가발전과 청소년. 서울, 배영사, 217-229, 1979.
24. 이재창 등: 청소년문제 종합진단연구. 교육개발원, 1981.
25. 이화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선도. 교육관리기술, 130호, 한국교육출판, 51-52, 1981.
26. 이훈구: "청소년의 사회지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노트 9,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0.
27. 인류사회개건연구원편: 현대사회의 위기와 사조. 경희대학교 출판국, 1984.
28. 장승희: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문제의 종합대책, 현대사회연구소, 220-239, 1983.
29. 조만제: 청소년의 비행문제와 대책. 밝은사회연구, 9, 1985.
30. 조영식: 인류사회의 재건. 경희대학교출판국, 1975.
31. 조영식: 오토피아. 경희대학교출판국, 1980.
32. 차철환: 공해와 질병관리. 보건학공개강좌, 보건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190-201, 1976.
33. 차철환: 생태계에서의 유독물질의 농축과 인체에

- 미치는 영향. 인류생태와 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보건협회, 49-56, 1975.
34.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 백서, 1991.
35. 함종한 : 청소년, 서울, 상조사, 339-344, 1981.
36. 현대사회연구소 :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1982.
37. 현대사회연구소 : 2천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308-310, 1984.
38. Brown, F. J. : Educational Sociology, N. J., Prentice-Hall, 158-160, 1961.
39. Greth, H. M. and Mills, C. W. :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1958.